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도시 인천</b>	
<b>배포일자</b>		2023년 9월 4일(월) 총 3매			
<b>담당 부서</b>	<b>자원순환과</b>	<b>담당자</b>	• 자원재활용팀장 오미애 • 담당자 오선주	☎440-3571 ☎440-3573	
<b>사진(이미지)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올해 마지막 ‘녹색 나눔장터’ , 16일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장

- 9월 4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, 어르신·장애인은 전화접수도 -
- 의류, 도서, 장난감 등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,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중고 물품을 판매·교환하는 ‘2023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’를 9월 16일(토)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 올해 열리는 세 번의 나눔장터 중 마지막 장터다.

의류, 도서,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. 참가자들은 한자리에서 150점 이하의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 및 교환할 수 있지만,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
특히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‘재활용 폐기물 수거대작전 더쓸모마켓’ 부스를 운영해 폐우산, 양산, 데님의류 등을 5점 이상 가지고 오면 투명페트병으로 제작한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인천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폐우산 재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‘폐우산 모으기 캠페인’에 동참하는 시민에게는 폐우산으로 만든 기념품을 선착순

100명에게 제공한다.

중고물품 판매 외에도 ▲자원순환 재활용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 ▲기관단체의 나눔 활동 ▲버스킹 공연 ▲폐건전지 수거 코너도 운영하며, ▲공정무역 커피 판매 부스에서는 텀블러 이용자에게 공정무역 커피를 50%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.

나눔장터에 판매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9월 4일부터 인천YWCA 누리집([www.ywcaic.or.kr](http://www.ywcaic.or.kr)) ‘나눔장터 예약 신청’ 배너 클릭 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, 인터넷에 어려움을 느끼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해 10팀은 전화접수(☎032-424-0524)도 받을 예정이다.

판매자 참가비는 없으나, 참가자들이 판매한 수익금 중 일부(10%)를 연말에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금 및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. 앞서 올해 2회에 걸쳐 개최한 장터에서는 현재까지 313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.

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“올해 마지막 나눔장터인 만큼 가족 단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가정 내 중고물품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판매수익의 일부는 기부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내년에는 개최 횟수도 늘릴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## 붙임

## 관련사진



2023. 4. 22.(토) 장터 운영 전경



2023. 4. 22(토) 개장식 축하공연



폐우산으로 제작한 머리끈, 동전지갑



2023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포스터